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사회 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The Critical Remodeling Leisure Constraints:
Integrating Social Structure and Individual Action

정란수** · 이 훈*** · 이인재****

Jeong, Ran-Soo · Lee, Hoon · Lee, In-Jae

ABSTRACT

This study was to modify leisure constraint model developed by Crawford, Jackson, and Godbey(1991). The basic ideal is that the social structure and individual actions have interactive influences on each other. Based on the findings, the model of integrated leisure constraints(M-ILC) was suggested. Unlike previous one, the model directly integrated macroscopic subjective social structure(e.g., culture, norm and values) in addition to macroscopic objective social structure(e.g., society, law, and bureaucracy) as the model variable. Further, the proposed model also distinguished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and subjective intra constraints) and extrinsic motivation(and objective intra constraints) in that while the former has a direct influence on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latter has a indirect moderate role.

핵심용어(Key words): 여가제약모형(leisure constraint model),

사회구조와 행위(social structure and activity),

생태적 접근모형(ecologically approaching model),

맑스주의(Marxism)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B00226).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원 · 한양대 관광학과 박사과정. e-mail: naked38@naver.com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 e-mail: hoon2@hanyang.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 교수. e-mail: ij14572@c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북미권을 중심으로 개인이 여가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여가제약모형이다(Jackson & Scott, 1999). 여가제약모형(model of leisure constraints)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여가선호가 여가참여에 영향을 주지만, 여가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비참여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여가제약모형의 핵심은 Crawford, Jackson & Godbey(1991)가 제시한 여가선호-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여가 선호에 따른 참여과정에서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그리고 구조적 제약요인(Structural Constraints) 등 세 제약 구성요인이 각각 위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1990년대 들어 여가제약모형에 대해서도 여러 발전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발전적 논쟁은 여가제약모형이 갖는 내재적 제약요인, 대인적 제약요인, 구조적 제약요인의 순차적인 위계성 및 전체적인 틀에 대한 비판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Kelly, 1999). 즉, 많은 연구들이 구성요인을 검증하고는 있으나 본질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제약요인의 위계성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제약 요인들은 얼마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의 본질적 비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가제약모형의 형태에서 인간의 행위는 내재적 또는 개인의 주관적 개념이 우선되고 구조적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규정되고 있으며, 각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크게 사회 구조 및 거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을 형성한다면, 인간의 행위 및 미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그 한 축을 이루어왔다(정태석, 2002). 최근에는 Coleman 등이 합목적적 행위이론을 사회이론의 기초로 삼으면서도 개인의 합목적적 행위들을 사회적 산물의 생산과 결합시키는가 하면(Joas, 2002; 정태석, 2002). Callinicos, Giddens 등 여러 사회학자들은 사회이론의 구성에 대하여 행위와 구조를 통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Callinicos, 1997; Giddens, 1998).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개인의 행위, 사회구조 등 한 측면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그 자체가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가제약모형 역시 보다 여가제약이라는 사회현상의 다양한 설명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여가제약모형을 비판하고, 이를 재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의 여가제약모형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기존의 여가제약모형의 흐름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다음,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을 위한 사회구조와 행위 이론을 검토하여 여가제약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관점에서 여가제약모형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여가제약모형에 대한 재구성된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론

메타이론은 기존 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통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이론으로, 기존 이론에 대한 자료인 메타자료의 분석을 메타이론분석(Meta-theory Analysis)이라고 한다. 메타이론분석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메타분석은 일정한 주제 또는 문제, 가설 등을 연구초점으로 삼아 그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별개연구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각 분석방법과 그 과정상 기본전제를 검토 후 보다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거나 결론을 모색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Jackson, 1980; Cooper, 1984; Zhao, 1991; 이지훈, 1993; 황희정·이훈, 2006). 이러한 메타이론분석은 크게 정성적 메타이론분석과 정량적 메타이론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정성적 메타이론분석은 이론의 발전 계승에 많이 쓰이며, 정량적 메타분석은 기존의 연구의 종합 성격의 고찰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메타이론분석을 통해 여가제약모형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을 진행하였다. Cooper(1984)는 정성적 메타이론분석에 대하여 첫째, 넓은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연구들의 개념을 통합하기 위하여 계량적 분석이 불가하고 불필요할 때, 둘째, 동일현상에 대한 것이라도 추상적 개념 또는 구성이 주된 개념으로 사용된 연구는 이에 대한 메타평가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때, 셋째, 너무 확연히 다른 기존 연구들을 메타이론 분석할 때, 무모한 계량화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성적 메타이론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성적인 메타이론분석에서는 몇 가지의 중점적 검토를 위해 재분석이 이루어

지게 된다. 첫째, 이론의 체계와 관찰이다. 각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에 대하여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 또는 개념, 명제, 법칙, 가설, 관찰가능한 사실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둘째, 유형의 정립이다. 유형의 정립은 연구문제에 대한 현황과 범위를 보고, 타당한 관계 이론을 분석하고, 유형의 잠재적 해설 및 설명력을 검토하기로 한다(McKinney, 1967). 셋째, 개념분석을 통한 개념이 갖는 대상, 의미, 용어의 관계 파악이다. 여가제약요인 및 비판적 주체인 사회구조와 행위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개념들간의 관계와 차이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넷째, 메타이론의 분석이다.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념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이지훈,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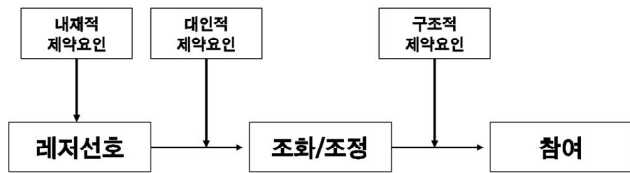
II. 여가제약모형의 개념적 검토

1. 여가제약모형의 개념

북미권 여가 연구는 1950~1960년대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사회경제적 상태(SES: Social Economic Status)에 초점을 둔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여가 참여에 대한 실증적, 정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에는 여가 연구에 있어 보다 사회심리학의 영향을 반영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참여, 활동, 시간으로서 여가 개념으로부터 보다 주관적 혹은 경험적 정의, 경험과 참여로 정의되는 여가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Jackson & Scott, 1999).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요인, 만족요인 등에 대한 문제들이 주 논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북미 여가학 연구 경향과 유사하게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상태 및 계급간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대 이후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과 여가편익(Leisure Benefit) 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여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철원, 2001). 여가제약모형도 이러한 경향 하에 발전된, 개인 심리상태를 강조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여가제약모형은 제약요인에서 행위와 구조, 즉 미시와 거시 관점 양 측면을 모두 다루고는 있으나, 중점적인 전제는 인간의 행위 관점에서 선호와 참여의 관계에서 여가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가제약의 이론적인 모형은 Crawford & Godbey(1987),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에 의해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그리고 구조적 제약요인(Structural Constraints) 세 측면의 위계적 모형로 제시되었으며, 이들 세 요소는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 단계가 극복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내재적 제약요인은 흥미, 자기자각, 불안 등 개인적인 심리상태나 특성을 포함하며, 대인적 제약요인은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한 동반자와 같은 인적관계나 교류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요인은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대인적 관계가 형성된 후 실제 활동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차원으로 재정상황, 시간, 정보 등에 관련된다.



〈그림 1〉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의 여가제약모형

2. 여가제약모형의 발전과정

이러한 여가제약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론의 확장 및 수정을 요구하는 연구자가 많은데, Jackson & Scott(1999)의 경우 여가제약연구는 객관적인 사회과학의 입증된 이론이 아닌 당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산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Samdahl & Jekubovich 또한 비교분석과 이해로서의 여가제약에 대한 비판 글에서 개인은 제약을 분명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여가제약요인 자체가 연구자에 의한 구조적 형태로 분석되어 개인의 삶을 인위적으로 이론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Samdahl & Jekubovich, 1997; 송영민 · 이훈, 2006). Scott(1991), Jackson, Crawford & Godbey(1993)는 여가제약의 협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개개인 은 여가 제약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첫째, 제한된 기회에 대한 정보 획득, 둘째, 집단 구성원과 개인의 시간 조정, 셋째, 새로운 여가에 참여하기 위한 개인의 기술 개발 등의 협상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Henderson(1997)은 Jackson, Crawford & Godbey(1993)의 논의를 토대로 여가제약요인과 또 다른 여가 행동 요인인 동기 요인(Motivation), 가치 요인(Value), 만족 요인(Satisfaction)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Hubbard & Mannell(2001)은 여가 협상이 제약, 동기, 협상 요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시도들은 여가제약모형이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의 순차적인 형태나 각 요인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타 요인의 추가 등을 통한 변형만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연구 모형을 발전시키는데 일정부분의 한계가 존재한다(Kelly, 1999; 이인재 · 이훈, 2006)

Raymore(2002)는 여가 제약 요인이 또 하나의 촉진 요인을 가져와서 오히려 다른 여가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여가촉진(Facilitators to leisure) 모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의 연구에서 여가촉진요인은 여가제약요인의 정의를 이용하여 개념화하였는데, 여가선호를 형성하거나 촉진하며 여가참여를 강화하거나 장려하는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다(Raymore, 2002; 송영민 · 이훈, 2004). 또한 그는 촉진요인은 여가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환경적 조건(condition)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Raymore(2002)는 생태적 접근모형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는데, 이 모형은 구조적 제약 또는 촉진 요인 내에 대인적 제약 또는 촉진 요인이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내재적 제약 또는 촉진요인이 위치하여있는 형태를 띤다. 이유리 · 박미석(2006)의 연구는 바로 Raymore의 생태적 접근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구조적 제약요인과 대인적 제약요인이 내재적 제약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III. 사회구조와 행위의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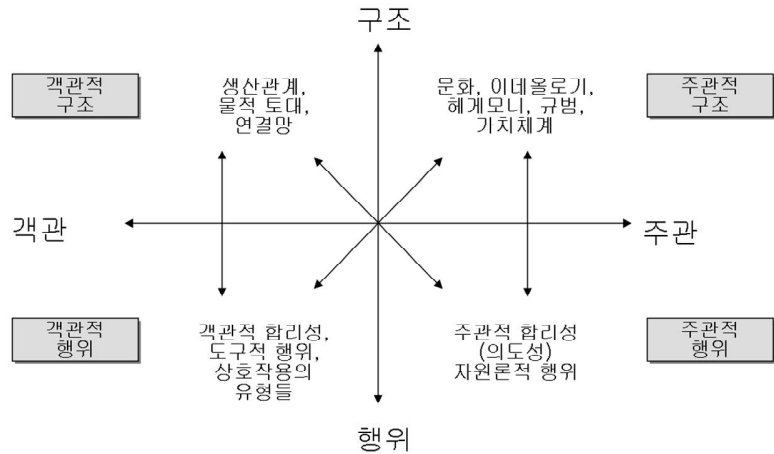
1. 사회구조와 행위

1)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와 행위(Action)의 관계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론과 '사회구조'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양분되어 발전되어 왔다(정태석, 2002; 김용학, 2003). 이러한 성향의 두 흐름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합주의적 성향의 대립, 행위와 구조의 대립, 개인주의와 구조주의의 단절,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 접근의 양립 등으로 여러 학자들은 지적한 바 있다(김용학, 2003). Fuller(1998)는 구조와 행위의 문제는 사회이론의 중심문제이자 '문제 틀'을 안내하며, Giddens(1976)는 사회구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이자, 그 결과라고 주장을 하며 사회구조는 인간행

위에 의해 구성되지만, 동시에 바로 그같은 구성의 매개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와 구조 두 측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Miles, 2003).

사회구조와 행위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Ritzer(1992)는 사회이론 분석 차원 분류를 통해, 구조와 행위 및 객관과 주관으로 연결방법을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객관적 구조는 생산관계, 물질 토대, 연결망을 의미하며, 주관적 구조는 문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규범, 가치체계를 나타낸다. 또 객관적 행위는 객관적 합리성, 도구적 행위, 상호작용의 유형들을 뜻하고, 주관적 행위는 주관적 합리성(의도성), 자원론적 행위, 즉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로 구분하고 있다(정태석, 2001; 김용학, 2003).



〈그림 2〉 Ritzer(1992)의 사회이론 차원분류

Ritzer와 유사하게, Sztompka(1991)는 구조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잠재성과 현실성, 총체성과 개인성의 교차를 통하여 구성을 하였는데, 잠재성-총체성은 구조, 현실성-총체성은 작동, 잠재성-개인성은 작위자, 현실성-개인성은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양종희(1994)는 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와 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문화의 위치는 문화체계 자체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논의를 중시하고 있다(김용학, 1987; 이기홍, 1994; 이재열, 1996; 이선미, 2002). 구조와 행위, 또는 거시와 미시 관점을 통합하려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Giddens(1998)의 구조화이론과 Callinicos

(1997)의 역사유물론 관점에서의 사회구조와 행위를 들 수 있다.

2)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Giddens는 구조화이론에 대하여 구조와 행위수행 사이의 본래적 관계 덕분에 구조는 언제나 가능성(enabling)이자 제약성(constraining)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Giddens, 1998). 다시 말해 하나의 구조는 행위에 대한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다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이는 Raymore(2002)의 여가촉진요인을 연계하여 생각할 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제약요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Giddens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의 재생산은 오직 특정 사회적 맥락에 처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규칙과 행위자들의 적용 및 재적용을 통해서만 계속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맥락의 다중적 차원들은 사람들의 일정한 지식능력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iddens는 개인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사회구조의 그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시간-공간의 문제로 확장시키기도 한다(Stokowski, 1994; Tucker, 1999).

Giddens 역시 행위자, 사회체계, 사회구조로 사회현상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개별 행위는 행위자 측면, 인간 사회의 상호교류에 대한 행위는 사회체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은 사회구조로 보고 있다(Giddens, 1991; 1998). 이러한 분류방법은 구조주의에서도 흔히 보여주고 있는 방법으로 사회구조와 행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의 구조와 행위를 설명한 연구자로는 Callinicos가 있다(Callinicos, 1997; 2003). Callinicos는 Marx의 사적 유물론에 대한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며 Giddens의 구조화이론이 구조가 행위를 조건짓는다는 식의 강한 인과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며, 만약 구조가 행위에 강한 인과관계를 지닌다면 사회는 정태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는 오직 행위의 매개물로서 약한 의미에서만 행위를 조건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allinicos, 1997). 이를 볼 때 여가현상에서도 구조와 행위는 제약의 관점만이 아닌 촉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조와 행위간 관계는 강한 변수(variable)로서의 관계가 아닌 매개적인 조절변수(parameter)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여가계약모형은 내재적 제약요인에서 주관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인적 제약요인에서 객관적 행위를 다루며, 구조적 제약요인에서 구조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구조를 다루고 있기에 구조와 행위의 통합 이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여가 선호가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행위 관점에서의 전제를 통해 출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위에 근접한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학 등 이미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만이 보다 사회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itzer, 2006). 여가관광학에서도 사회심리학의 미시행위 분석과 함께,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이 보완되는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여가관광 현상에 대한 이론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구조와 행위 관련 개념검토

여가계약모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와 행위와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여가계약모형 내 각 요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을 위한 개념적 검토이다, 둘째로 여가계약모형 내 각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구성하는데 추가 개념 및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토대와 상부구조

사회적 토대와 상부구조론은 Marx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위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인 사회적 토대(Social Basis)의 생산관계 하에 인간의 행위가 상징체계나 이념인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결정하게 되며, 상부구조 하에서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행위를 하여 이는 다시 자원의 통제와 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토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일철 · 이재열, 1999).

하지만 사회적 토대와 상부구조론은 항상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비판은 이러한 이론이 갖는 환원주의이다. 환원주의는 알튀세르적 맑시즘에서 제시한 토대/상부구조론이 그 기계적 성격을 유지하고, 서로 분리되고 불연속적이며 외적으로 연관된 '요소들', '수준들', '심급들'을 통한 사회구조의 개념화를 고집하며 결국 인간의 행위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Wood, 2004).

2)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무동기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인간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단순히 수

동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과정을 통해 환경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한덕웅, 2004).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은 첫째, 외부보상에 의하여 동기를 유발하게 되면 인간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게 되며, 둘째, 외부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를 지속시키려면 계속해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외부보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보상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활동 자체보다 보상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가진다(Charms, 1976; Deci, 1980; Lepper, Greene & Nisbett, 1973). 한편, 여가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고동우(2000)의 경우 자기 결정성과 합목적성이 이루어지고, 자기유능감이나 사회적 관계성을 포함하는 자기향상적 체험을 활동 참여동안에 겪게 될 때, 내재적 동기는 유지, 강화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반대되는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extrinsic motivation & non motivation)는 외적 보상이라는 측면 및 본능과 관련된 설명을 말한다. 외재적 동기는 여러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고전적인 가설에서 제시했던 내재적 동기가 높으면 자연히 외재적 동기가 낮은 것이 아니라, 외재적 동기 역시 높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상호 독립적이고 직교적이지만, 외재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가진다(송선희 · 하대현 · 최형주, 2004). 본 연구에서도 바로 이러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특성을 근거로 한다.

3) 자율적 행위와 타율적 행위

Marx의 소외론의 경우,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임금관계'라고 하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처해 있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개인이 생산해 낸 결과물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물들이 구조를 보다 강화시켜나가는 개념이다(이홍균, 1995). 다시 말해 기존의 여러 사회심리 이론들이 자율적 행위(voluntarily action)에 대한 연구였다면, 사회구조가 사회압력을 행사하여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타율적 행위(heteronomy action)를 하는 이유는 인간 소외로부터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홍균, 2004).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인간에게는 구조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율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곧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이 존재

하지만, 구조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행위영역도 존재하며, 이를 Weber 등에 기초를 한 Parsons 등은 인간의 행위를 구조의 영향이 아닌 인간의 의미 추구에 의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김덕영, 2004).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 영역 이외의 사회구조가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결정하는 타율적 영역은 소외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구조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Callinicos(1997)가 주장했듯이, 약한 의미의 매개물로서 봐야 한다.

4) 영향변수(variable)와 조절변수(parameter)

여가관광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영향변수를 밝히기 위해 흔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를 조합하여 추출해내거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척도화(scale)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영향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 조합과정 또는 척도화 방법 이전에 각 변수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간 질적 접근이 부족하다보니 종속변수에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설명이 되는 영향변수인지, 아니면 영향변수에 조건(condition)으로 작용하는 조절변수인지를 파악하지 않는 실정이다.

조절변수(parameter)는 조변수(助變數), 매개변수(媒介變數) 또는 모수(母數)를 말하는데, 이는 첫째, 수학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이것보다 적은 다른 변수의 함수로 바꾸어 놓는 후자의 변수, 둘째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체제에서 생산량·소비량·통화량 등의 변수가 각각의 시간의 함수로 생각될 때 시간을 표시하는 수, 셋째 파라미터의 의미를 전용(轉用)하여, 어떠한 함수 방정식에서 처음 정수(定數)로 주어진 수를 다음 단계에서 변화시킴으로써 종속변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할 때, 이 제2단계의 변화하는 상수(variable constant),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파라미터라 한다(이중수, 2000). 흔히 조절변수(parameter)는 함수에서 몇 개의 변수 사이에 함수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라고 설명한다. 정책분석에 있어서 자재비, 토지비, 인건비 등과 같은 매개변수 값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값들은 기술혁신이나 유투파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등 경제 외적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한다고 설명한다(김홍배, 2003). 영향변수가 말 그대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상수(constant)와 같이 변수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값을 취하는 양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라면, 조절변수(parameter)는 어떠한 외적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일종의 조건(condition)인 개인 통제 불가능 변수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여가제약모형 비판

여가제약모형은 크게 사회구조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여가제약모형을 비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회구조적 접근에 대한 비판사항

1) 주관적 구조(상부구조)의 부재

여가제약모형의 경우, Ritzer에 따른 주관적 구조, 또는 Marx의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 모형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관적 구조란 Ritzer(1992)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문화, 이데올로기, 체계모니, 규범, 가치체계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여가제약모형의 구조적 제약요인에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구조적 제약요인 변수로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치분소득 부족, 여가시간의 부족, 시설 부족, 정보 부족 등은 생산관계, 물질토대, 연결망 등 객관적인 구조 형태로 볼 수 있다(이훈·정철·정관수·이승구·정우철, 2004).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관계가 있는 주관적 구조는 여가제약모형에서는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영향을 미치는 단계 또한 여가에 대한 선호 이전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규범 등에 따라 행위자는 자신을 맞추려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Raymore(2002)는 생태적 접근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여성이 거울을 보고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름답다는 객관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판단되는 가치체계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조는 결국 여가 선호 단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 구조(사회구조적) 변수가 추가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조는 행위 이전의 단계에서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안 1: 여가제약모형에 있어 행위 이전의 단계에 '주관적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구조의 개념 세분화 필요

사회구조에 대한 제약,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적 제약, 대인적 제약 간의 관계성 문제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Giddens(1997)의 경우, 구조적 제약과 유사한 제약요인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은 행위의 맥락성 즉 상황지어진 행위자들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적 속성의 '주어진' 성격에서 유래하는 제약으로 여가제약모형에서 주장하는 구조적 제약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 오히려 Crawford, Jackson & Godbey(1987)의 구조적 제약요인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시간, 돈 등 물질적 제약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물질세계의 특성과 신체의 물리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제약을 말한다. 또한 제재란 일부 행위자가 타인에게 처벌적 반응을 하는 데서 유래하는 제약을 말한다. 결국 구조화이론에서의 대인적 제약(제재)과 물질적 제약은 인간의 행위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구조적 제약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 제약 간의 관계는 구조적 제약 하에 물질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이 영향을 받고, 물질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안 2: 여가제약모형 상의 구조적 제약은 상호관계성이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제약, 개인의 물질적 제약, 대인적 제약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행위적 접근에 대한 비판사항

1) 동기와 제약간의 관계성 고찰

내재적 제약요인과 여가 동기요인 간의 관계의 고찰이 필요하다. 흔히 여가 동기요인은 여가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내적 조건, 즉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서태양·차석빈, 2002). 이론적으로 여가 현상의 동기 관련 연구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된 근본적 동기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에 초점을 맞춰 내적 조건의 다양성을 규명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여가가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지향하는 바가 자기실현 및 자기개발이다'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암묵적으로 사용해왔다(채선애·한성열, 2002). 이러한 한계성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여가동기는 여가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로, 그 이유는 여가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조아미, 2003). Raymore(2002)는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요인과의 관계성에서 여가동기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대로 여가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가제약요인은 여가 선호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하나의 조건(condi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주장대로라면 여가동기는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variable)이며, 내재적 제약요인, 대인적 제약요인, 물질적 제약요인, 구조적 제약요인은 여가선호의 조건을 결정짓는 조절변수(parameter)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여가 동기도 모든 부분이 다 영향변수는 아니다. Baldwin & Caldwell(2003)은 여가동기(free time motivation) 유형을 무동기, 외재적, 내재적으로 설명하면서 무동기쪽으로 갈수록 비자기결정적이며, 내재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결정적이라 표현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내재적 동기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만족과 즐거움이라는 요인은 내재적 제약 요인 중 주관적인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내재적 제약 요인은 흔히 흥미가 없거나, 여가에 관심이 없다는 주관적인 부분과 몸에 장애가 있어서 등의 객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과 내재적 동기는 선호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향변수이며,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과 외재적 동기 및 무동기는 조건으로서의 조절변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안 3: 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가제약 변수는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이며, 조절변수는 이외의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물질적 제약,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2) 자율적 행위와 타율적 행위의 구분

행위에 대하여 자율적 행위와 타율적 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여가제약모형에서 제시된 선호와 참여간 관계성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자율적 행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내재적 제약 이전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에 의해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Raymore(2002)의 여가 촉진요인의 설명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내재적 촉진요인이 구조적 촉진, 대인적 촉진요인에 둘러 쌓여 있는 형태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는 타율적 행위 영역이 있음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앞서 제기했던 구조적 제약 요인에 대한 개선과 같이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적 토대와 상부구조로 제시된 사회구조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타율적 행위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안 4: 영향변수라 할 수 있는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은 자율적 행위이며, 조절 변수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물질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타율적 행위이다.

3. 사회구조와 행위의 관계성 관계

Giddens(1998)의 사회구조의 구성요소들 간에 제약과 통제의 이중성을 토대로 하는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사회 구조화 이론에서는 실재구조, 행위구조, 상징/이념구조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사회의 구조화는 개인 행위자에 의해 촉발되어 상징체계/이념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상황이 다시 행위자에, 그리고 실재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연관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김일철·이재열,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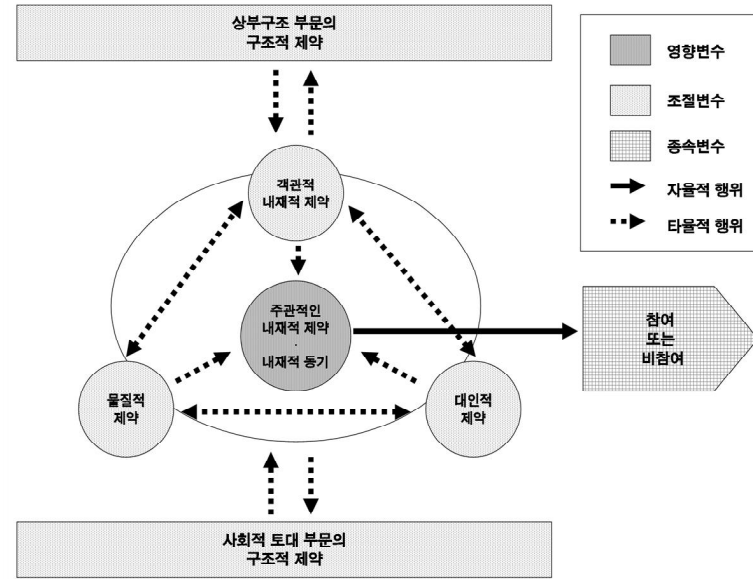
하지만 Callinicos(1997)가 제기한 맑스주의 관점의 경우 실재구조, 행위구조, 상징/이념구조의 관계성은 같으나, 그 출발점이 실재구조에서 부터의 출발로 규정 짓는다. 이 두 가지 어떠한 과정에서도 사회구조와 행위에 있어서 크게 사회구조적 틀과 사회 체계적 틀은 나누게 되며, 이 부분에서는 실재구조와 상징/이념구조가 사회구조 부분이라면 행위구조 부분은 사회체계와 미시행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Danermark et al.(2005)도 사건(미시행위) - 기제(사회체계) - 구조(거시구조)로 사회구조와 행위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제안 5: 여가제약모형에서는 거시구조, 사회체계, 미시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며, 거시구조 단계는 구조적 제약, 사회체계 및 미시행위 단계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물질적 제약이 포함된다.

V.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1. 여가제약모형 비판적 재구성 모형

앞서 살펴본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을 통해 통합적인 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통합된 여가제약모형
(M-ILC: The Model Of Integrated Leisure Constraints)

여가제약모형을 재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우선,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은 여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은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에 영향을 주어 여가 경험에 자극을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Raymore(2002)의 생태적 접근모형에 의하면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요인은 내재적 제약에 영향을 주는 조건(condition)형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앞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요인은 다시 거시구조 단계와 사회체계 단계로 나뉘어져야 하며 거시구조에는 맑스주의 접근의 상부구조와 사회적토대 부분으로, 사회체계에는 대인적 제약요인과 물질적 제약요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 규정은 Marx의 소외론 관점에서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다. 즉, 인간의 자기 결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행위의 자율성이라면, 사회적 압력은 행위의 타율성을 뜻한다. 본 모형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이 여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이지만, 다른 요인 간의 관계는 모두 타율적인 행위 관계로 볼 수 있다. 변수 역시 행위의 자율/

타율성과 연계해서 본다면, 여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영향변수이며, 간접적인 조건(conditi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는 조절변수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은 영향변수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의 변수들은 모두 조절변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사회구조적 제약 부분 중 사회적 토대가 사회체계 및 미시행위에 영향을 주며, 사회체계와 미시행위 내에는 물질적 제약, 대인적 제약,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등의 조절변수가 존재하고, 이러한 조절변수는 본인의 자기결정적 영역인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요인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최종적인 참여 행위는 다시 상부구조와 사회적 토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룬다. 본 모형의 관점은 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생태적 접근모형과 맑스주의적 관점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단, 앞서 고찰한 동기요인에서 내재적 동기는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과 함께 영향변수로, 외재적 동기 및 무동기는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물질적 제약 등과 함께 조절변수로 설명되어야 하나, 본 모형이 여가제약 요소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형도식화에서는 제외하였다.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이론의 구성에 대하여 행위와 구조를 통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여가제약모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사회구조적 접근의 비판내용에서는 주관적 구조(상부구조)에 대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 행위적 측면으로서의 비판사항으로는 동기와 제약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 자율적 행위와 타율적 행위와의 구분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 사회구조와 행위의 관계성에 대한 비판사항으로는 거시구조, 사회체계, 미시행위 수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비판사항을 통해 맑스주의적 사회구조와 행위의 체계 및 Raymore(2002)의 생태적 접근모형을 통합하여 모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미시행위로서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체계구조로서 다른 제약들인 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외재적 동기 및 무동기, 대인적 제약과 물질적 제약이 존재하며 이들은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에 타율적인 행위로서 조절

변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 사회구조의 성격으로는 사회적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여 사회적 토대는 행위 영역인 체계구조와 미시행위에, 이 행위 영역은 다시 상부구조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계속 순환 반복하여 발전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사회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여가제약모형은 향후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이론적 보완으로 인한 보다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구조조정 심화 및 비정규직 증가(사회적 토대 부분의 구조적 제약), 사회 전반적인 노동중독의 심화(상부구조 부분의 구조적 제약), 노동중독으로 인한 여가 선호 자체의 감소(주관적인 내재적 제약), 임금 감소 및 야근의 증가(물질적 제약), 여가보다는 소득 중시 및 일로 인한 보상 동기의 생성(외재적 동기) 등은 기존 여가제약모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본 모형을 통해 일정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강수돌, 2002; 정란수 · 정철 · 황희정, 2004), 추후에 이러한 노력은 실증연구가 진행되면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우선, 이론의 측면에서 기존 주류 여가관광학에서 간과했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기존 심리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론의 확장을 통한 폭넓은 학문적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성적 메타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방법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여가제약모형을 비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회현상의 해석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회구조와 행위에 대한 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앞으로 다른 학문과의 교류와 다학제적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완되고 비판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돌(2002). 노동중독증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아카데미.
 고동우(2000). 기획 축제 참가자의 여가 경험: 내재적 동기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 187-203.
 김덕영(2004). 『짐멜이나, 베버냐?』. 한울아카데미.
 김용학(1987). 사회연결망 분석의 이론들: 구조와 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1), 31-58.

- 김용학(2003). 『사회 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나남출판.
- 김일철·이재열(1999). 사회구조론의 이론과 방법론.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아르케.
- 김홍배(2003). 『정책평가기법: 비용·편익분석론』. 나남출판.
- 서태양·차석빈(2002). 『여가론』. 대왕사.
- 송선희·하대현·최형주(2004). 내·외재 동기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1), 125-150.
- 송영민·이훈(2006). 여가축진요인의 구조모형 분석: 주5일수업제 청소년 여가환경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8(2), 7-24.
- 양종희(1994). 사회이론에 있어서 문화의 위치: 문화와 사회구조 및 문화와 행위의 관계. 『한국사회학』, 28(4), 1-27.
- 이훈·정철·정란수·이승구·정우철(2004). 여가활동과 제약요인 구조모형: PPA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6(2), 29-48.
- 이기홍(1994).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한국사회학』, 28(4), 163-194.
- 이선미(2002). 조절이론의 사회이론적 비판: 구조와 행위의 통합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36(5), 29-57.
- 이유리·박미석(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339-357.
- 이재열(1996). 구조와 행위의 이중성과 미시 - 거시 연계분석의 방법론. 『한국사회학회 학술논문집』, 177-202.
- 이종수(2000).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이지훈(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 이철원(2001). 『여가의 재해석』. 대한미디어.
- 이홍균(1995). 맑스 소외론의 현대적 의미. 『한국사회학회 학술논문집』, 9-15.
- 이홍균(2004). 『소외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정란수·정철·황희정(2004).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레저 소비와 레저 만족 분석: 노동패널조사(KLIP)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과엔터테인먼트 연구』, 2, 121-137.
- 정태석(2002). 『사회이론의 구성: 구조/행위와 거시/미시 논쟁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 정혁인(1997). 사회학적 메타이론에 대한 소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취구논문.
- 조아미(2003). 청소년 여가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청소년학연구』, 10(4), 381-401.
- 채선애·한성열(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한덕웅(2004). 『인간의 동기심리』. 전영사.
- 황희정·이훈(2006). Ishmael에 나타난 Quinn의 생태사상으로 본 지속가능한 관광 비판. 『관광학연구』, 29(3), 271-290.
- Baldwin, C. K., & Caldwell, L. L.(2003). Development of the free time motivation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 129-151.
- Callinicos, A.(1997). 『역사와 행위』. 사회비평사.
- Charms, de, R.(1976). *Enhancing Motivation: Changing in the classroom*. NY: Irvington.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Danermark, B., Ekstrorn, M., Jakobsen, L., & Karlsson, J. C.(2005).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한울아카데미.
- Deci, E. L.(1980). *The psychology of self-determination*, MA: Lexington Books.
- Fuller, S.(1998). *From content to context: a social epistemology of the structure-agency craxøn* A. Sica(ed.) What is Social Theory? The Philosophical Debates, Oxford: Blackwell.
- Giddens, A.(1976).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London: Hutchinson.
- _____ (1991).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문예출판사.
- _____ (1998).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 Henderson, K. A.(1997). A Critique of Constraints Theory: A Respon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53-457.
- Hubbard, J., & Mannell, R.(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 23, 145-163.
- Jackson, E. L., & Scott, D.(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ge College, PA: Venture Pulishing, Inc.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Jackson, G.(1980). Methods for Intergrative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이지훈(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에서 재인용).
- Joas, H.(2002). 『행위의 창조성』. 한울아카데미.
- Kay, T., & Jackson, G.(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01-313.

Kelly, J. R.(1999). Leisure and Society : A Dialectical Analysis, In E. L. Jackson & T. 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 for the twenty-first century*Stage College, PA: Venture Pulishing, Inc.

Lepper, M. R., Greene, D., & Nisbett, R. E.(1973).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s: A test of the 'overjustification'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29-137.

Miles, S.(2003). 『현실세계와 사회이론』. 일신사.

Raymore, L. A.(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Ritzer, G.(1992). *Sociological Theory*, 3rd ed., N.Y: McGraw-Hill, Inc.

_____ (2006). 『사회학이론』. 한울출판사.

Samdahl, D. M., & Jekubovich, N. J.(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Comparative analysis and understand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29(4), 430-452.

Scott, D.(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ract bridge: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21-326.

Stokowski, P. A.(1994). *Leisure in Society: A Network Structural Perspective*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Sztompka, P.(1991). *Society in Action: The Theory of Social Becom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ucker, K. H.(1999).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일신사.

Wood, E. M.(2004). 틈새와 토대/상부구조 논쟁.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40003516381>

Zaho, S.(1991). Metatheory, Metamethod, Meta-Data-Analysis : What, Why, and How? *Social Perspectives*, 34, 377-390.

2006년 8월 22일 접수

2007년 2월 1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畢